

2018년 6월 30일 "(성경의 큰 숲 보기 17) 욥기 - 주님을 뵈옵시다"(욥 42:1-6)

<도입>

지혜서의 하나인 욥기는 독특합니다. 30 장이 넘는 긴 논쟁, 하나님의 긴 말씀(38~41 장)이 다른 책과 구별됩니다. 욥기에서는 왜 고통받는가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의의 길로 갈 수 있을까를 말해줍니다.

[1] 욥

욥은 의인이었습니다(1:1, 1:5). 이런 의인이 고난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인은 고난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허구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고통을 말합니다(아벨, 모세, 다윗, 선지자들, 히 11 장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소망을 얻어 새 삶을 열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사 26:10).

욥은 재산, 가족을 잃고 질병까지 얻어 큰 고통에 빠집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욥이 먼저 말문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3 장). 그의 말이 끝나자 친구들이 속에 있던 말들을 꺼냅니다. 세 친구의 결론은 '잘못했으니 벌받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무례하다'는 말로 대항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도덕주의, 전통주의, 이성주의를 배경으로 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이들의 말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고, 불통의 대화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덕적, 전통적, 이성적인 선한 말을 해도, 불통은 사람을 답답하고 소진시킵니다. 불통은 또 하나의 고난입니다.

여기서 삶에 대한 이슈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인생은 고난(복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여정인가? 부연하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인간 중심적 - 삶의 정답을 찾고자 하는 인생). 아니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하나님 중심적)? 즉 하나님을 찾는 여정입니다.

[2] 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욥의 고난의 원인은 사탄이었고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주신 것이 아님). 사탄은 욥을 시기했고,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1,2 장).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고통때문에 자신과 하나님을 저주할지라도 욥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할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우리의 문제는 속상함을 넘어 쓴 뿌리를 키움으로써 속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탓 아니면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부정적 판단과 비관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고통을 이기려고 자아를 더욱 강화하면 이에 분노와 불안이 커집니다. 욥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뵈고 싶다는 것입니다.

**23:7-8**(읽음) → 8 절. 하나님을 찾아도 뵈 수가 없다는 것.

**23:10** (새번역) "하나님은 내가 밭 한번 훑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단련이 아니라 조사, scan)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인생의 과제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23:14-15**(읽음) → 그분이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알기에 떨린다고(경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급기야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8-41 장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함께 공부하고 있는 창 1 장의 장면들을 풍성하게 설명하십니다.

욥은 말씀 속에서 창조주(창조)를 만납니다. 이것이 그를 주님 앞에 부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진수를 정면으로 만나면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성도가 주님의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면 믿음의 길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 [3] 욱기의 교훈

삶의 환경적/외적 고통도 괴롭지만, 더욱 괴로운 것은 상상 속 불안입니다. 욱에게도 불안이 있었습니다. 3:25 고백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하나님을 향한 동기 속에는 두려움/불안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불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불안의 영역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건강, 상실, 실패, 벌 받을까 봐... 그러면 삶을 조정하는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종교인은 종교행위에 더 애쓰고, 도덕적인 사람은 더 착하게 살려 하고, 세속적인 사람은 삶을 강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즉, 불안/두려움은 자기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인간은 심한 고난 속에 서면 불안은 더욱 커지고 무력함까지 느낍니다. 이때 사람에게겐 깊은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욱의 인생에서처럼, 막상 무서워했던 고난이 닥치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때(카이로스)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질적 불안을 반전시키는 영적 축복의 진수를 맛 보게 되는 것입니다.

#### <결론>

욕의 후기 인생은 부요함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물리적 축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유업의 축복이 기대할 수 없었던 만큼 이처럼 놀랍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욱은 두려워서 예배하는 자가 아닌 유업의 확신과 부요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같은 영적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2. 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유업자의 부요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